

## 退溪와 高峯의 梅花詩 和答의 美意識\*

신 두 환\*\*

### < 目 次 >

- |                                |                                |
|--------------------------------|--------------------------------|
| I. 문제의 제기                      | III. 퇴계와 고봉의 매화시 화답의<br>미의식 분석 |
| II. 퇴계와 고봉의 만남과 이별 그<br>시대적 배경 | IV. 결론                         |

### < 국문 초록 >

이 논문은 退溪 李滉(1501~1571)과 高峯 奇大升(1527~1572)의 매화시 화답에 대한 미의식을 연구한 논문이다. 퇴계와 고봉은 26세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단칠정론을 비롯해서 다양한 학문적인 교류와 토론이 있어왔다. 고봉은 퇴계를 스승으로 삼아 성리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완성하였다.

고봉은 선조임금에게 퇴계를 다시 조정으로 모셔야 한다고 극구 주장했다. 퇴계가 선조의 간절한 부탁을 받고 마지막으로 조정에 출사하였다가 사직 상소를 수차례 올려 드디어 사직을 허락받고 도산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이때 고봉은 봉은사까지 따라와 같이 자면서 퇴계를 전송하며 둘이서 이별주를 밤늦도록 마셨다. 고봉은 그 자리에서 퇴계가 서울의 건천동 우사에서 기르던 매화 화본을 주제로 시를 지어 바쳤다. 퇴계는 그 매화시에 대한 화답의 의미로 떠나는 배에 올라 마지막으로 전송하는 자리에서 이별의 정표로 고봉에게 梅花詩 8수를 주면서 화답을 해달라고 하였다.

\* 이 논문은 2019학년도 안동대학교 국립대학 육성사업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안동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ilovestudent@hanmail.net

고봉은 퇴계가 주었던 매화시 8수에 정성을 다하여 和答한 시를 지어서 부쳤다. 퇴계는 또 화답시를 지어 편지와 함께 고봉에게 보냈다. 고봉은 이에 대한 화답시를 또 지어 보냈다.

퇴계와 고봉이 이렇게 주고받았던 매화시에는 매화가 상징하는 고매한 절개와 선비정신이 들어 있으며 멋과 풍류가 넘쳐난다. 이들이 주고받았던 매화시에는 이지적이고 낭만적인 시풍이 넘쳐나며 고도의 품격과 다양한 성리학적 美意識이 함의되어 있었다.

【주제어】 退溪 李滉, 高峰 奇大升, 梅花詩, 和答, 美意識.

## I. 문제의 제기

退溪 李滉(1501~1571)과 高峰 奇大升(1527~1572)이 살았던 시기는 16세기 사림과 문학이 본격화되는 이른바 목릉성세로 조선의 성리학이 최고도로 발달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정치상황은 훈구파와 사림파의 격한 대립으로 당파싸움과 사회의 소용돌이 속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선비들은 하나 둘 조정을 떠나서 산림에 은둔하여 어지러워진 세상을 벗어나 자연에 묻혀 도학의 뜻을 펼치려는 새로운 문사들이 일어나 조선의 산수를 성리학의 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조정과 산림을 오가며 도학의 뜻을 펼치려는 관료겸 문인들은 자연에 귀의하여 문필활동을 하며 자연미의 새로운 발견을 취미삼아 심성수양에 몰두하였다. 퇴계 이황은 이들 부류 중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다.

명종이 승하하고 선조가 즉위하면서 조정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이 시기를 맞이하여 조정에 있던 고봉 기대승은 새로운 조정의 어른으로 퇴계 이황을 모셔오도록 논의를 모으고 선조에게 예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초빙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당시 퇴계는 수차례 사직 상소를 올려 정계에서 은퇴하고 도산에서 후학들을 교육하며 학문과 저술에 힘쓰고 있을 때였다. 이에 선조임금의 명을 거역하기가 힘들고 새로 즉위한 선조에

게 국정의 방향을 제시해 주기 위해 조정으로 출사했다. 퇴계에게 있어서 이것은 사실상 마지막 출사였다.

그러나 퇴계는 조정에 있는 것을 꺼려하며 도산으로 돌아오고 싶어 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소를 올려 사직을 허락해 줄 것을 간청하였다. 드디어 1569년 3월 사직이 허락되어 도산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퇴계에게는 마지막 귀향이었다.

선조 임금은 퇴계가 무사히 도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것을 명하였다. 퇴계가 귀향길에 오르자 많은 선비들이 배웅했으며 기고봉도 퇴계가 타고 가는 배에까지 올라 전송하였다. 이때 퇴계는 고봉에게 자신이 지니고 있던 매화시 8수를 이별의 정표로 주었다. 고봉은 이 매화시 8수에 和答해서 퇴계에게 보내었고 퇴계는 다시 이 매화시에 화답하였다. 이들이 매화시를 주고받으며 이별의 정을 나누는 것은 조선 선비사에 우아하고 숭고하게 전해온다. 이 사실은 이미 한 편의 논문으로 기록된 적이 있었다.<sup>1)</sup>

퇴계는 매화를 酷愛하였다. 퇴계는 33세 때부터 매화시를 짓기 시작하여 죽는 순간까지 120여수나 남길 정도로 매화를 지극히 사랑하는 문인이었다. 퇴계의 매화시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어 약 40여 편의 논문과 3권의 책이 발간되어 나왔다. 이들 논문에서도 이미 퇴계와 고봉의 매화시에 대한 언급이 되고 있었다.<sup>2)</sup>

이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매화시에 대해 심화된 연구를 통하여 이들의 시에 담긴 미의식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 II. 퇴계와 고봉의 만남과 이별 그 시대적 배경

고봉 기대승이 처음 퇴계 이황을 만난 것은 1558년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승문원부정자에 임명되었을 때이다. 기고봉은 그해 10월 이황을 처음

1) 허경진(1999) ; 신두환(2017).  
2) 정석태(1987;1991) ; 기태완(2011).

으로 찾아가 「太極圖說」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고봉은 퇴계를 만난 이 후부터 퇴계의 학문에 심취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퇴계와 만남은 학문과 사상 형성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그 뒤 이황과 13년 동안(1558~70) 학문과 처세에 관한 편지를 주고받았다. 그 가운데 1559년에서 1566년까지 8년 동안에 이루어진 四七論辯은 조선유학사상 깊은 영향을 끼친 논쟁이다. 이 외에도 기대승은 「武夷權歌」를 비롯한 주자의 문학에 대해서도 의문이 일어나면 자주 물었다. 퇴계는 26살이나 아래인 후배학자 기대승의 물음에 답변하면서 그의 학문의 세계를 친절하고 관심있게 도와주었다. 기대승은 이러한 퇴계를 숭모하면서 극진히 모셨다.

퇴계는 조정을 떠나 도산에 있었다. 1567년 명종의 부름을 받고 6월 25일에 서울에 왔다. 그러나 6월 28일에 명종이 승하하셨다. 선조가 뒤를 이어 즉위하였다. 1567년 선조 즉위년 7월 4일에 李滉 등에게 명하여 명종의 행장을 수찬하게 하였고, 7월 6일에는 이황을 禮曹判書兼同知經筵春秋館事로 삼았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8월 1일에 예조판서 이황이 명종의 장례식도 끝나지 않았는데 벼슬을 그만두고 하직인사도 하지 않고 훌쩍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다. 이때 서애 유성룡이 훌쩍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계 선생을 광진 나무까지 뒤따라가 전송하며 송별시를 지었다.<sup>3)</sup>

예조판서가 명종의 장례식을 그만두고 떠나버린 사건은 충격적인 것이었다. 이 사실을 두고 당시의 조정의 사론은 퇴계를 맹비난하고 있었다.

奇大升이 이 일에 대하여 서신으로 물었을 때 이황은 대답하기를, "옛 군자로서 진퇴의 분수에 분명했던 이들은 한 가지 일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었다. 일단 官守를 잃으면 반드시 몸을 떨치고 당장 떠났다. 그들도 임금 사랑하는 정으로서야 틀림없이 크게 차마 못할 바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때문에 떠나는 일을 그만두지 않았던 것은, 자기가 몸을 바쳐야 할 곳에서 義가 실현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반드시 자기 몸이 물러가야만 비로소 그 義에 위배됨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상황이

3) 류성룡, 『서애선생년보』, 권1, 「年譜」, 용경1년 8월 조항 참조.

라면 비록 크게 차마 못할 정이 있을지라도 義를 위하여 부득이 그 정을 제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일이 아니겠는가?"하였다. 그리고 또 자기와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기를, "옛날 주자는 煥章閣待制로서 孝宗의 상에 있어 發引도 하기 전에 떠났는데, 義로 보아 당연히 떠나야 할 처지이면 그렇게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하였다. 당시 사람들이 이황을 대유로 추중한 나머지 그가 어린 임금을 도와 태평성대를 이루어 줄 것을 바랐으나, 이황 자신은 자기가 經濟의 재주가 아니라 하여 어렵게 나갔다가 즉시 물러나기를 이와 같이 하였다. 사류들 공론은 그를 더욱 소중히 여겼고 그가 혹 크게 쓰이지 못할까하여 염려하였다.<sup>4)</sup>

퇴계는 義를 소중하게 여겼다. 그는 삶도 중요하고 의리도 중요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나는 생을 버리고 의를 택하겠다는 맹자를 상기하게 한다.<sup>5)</sup> 이것은 그의 의리관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다. 퇴계는 당시의 상황을 유학자의 처세에 맞게 실천했음을 강조하였다. 주자가 했던 대로 조정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군자의 길을 당당하게 가고 있었던 것이 발견된다.

68세 때인 1568년 3월 25일에 올린 상소에 신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 2월 그믐에 이르는 동안 무려 일곱 번이나 성상의 교지를 받았습시다. 모두 불려서 제수하는 것이었으므로 보잘것없는 신으로서 크게 바라시는 바에 부족하고 명철하신 교지에 보답하지 못할 것을 깊이 알았기 때문에, 명령을 내리실 때마다 정성을 다하여 장계로 아뢰거나 소를 올려 파면하여 주실 것을 빌었습니다만, 정성이 성상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허락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없었사웁니다.<sup>6)</sup>하였다.

이 상소가 왔을 때 선조임금께서 知製敎에게 교서를 짓게 하여 조정으로 올라 올 것을 간절히 청하였다. 선조의 간곡한 청을 못 이겨서 드디어 1568년 7월 24일 判中樞府事 李滉이 도성에 들어와 선조임금께 숙배하였

4) 『선조수정실록』 권1, 선조 즉위년 1567년 8월 1일 조항. 참조.

5) 『孟子』, 「告子上」. "生, 亦我所欲也, 義, 亦我所欲也. 二者不可得兼, 舍生而取義者也."

6) 이황, 『퇴계집』, 「퇴계선생년보」 권2.

다. 이황이 종1품에 가자한 것을 고쳐 줄 것을 청하니 허락하지 않았다. 또 8월 3일에 선조가 하교하였다. “지경연 이황이 조강에만 입참하는 것이 온편치 못한 듯하니 주강·석강에도 자주 입참하게 하라.”하였다. 선조가 퇴계를 대신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8월 6일에 이황을 대제학으로 삼았다. 8월 7일에 이황이 6조목의 상소를 올리니, 선조 임금께서 답하였다. “내가 상소를 보고 여러 번 깊이 생각해 보건대 경의 도덕은 옛사람과 비교해 보아도 경만한 사람이 적을 것이다. 이 6조목은 참으로 천고의 격언이며 당금의 급선무이다. 내 비록 하찮은 인품이지만 어찌 가슴에 지니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것이 유명한 퇴계의 상소문 「무진육조소」이다.

이황이 1568년 12월 1일에 「聖學十圖」를 올렸는데, 1.太極圖, 2.西銘圖, 3.小學圖, 4.大學圖, 5.白鹿洞規圖, 6.心統性情圖, 7.仁說圖, 8.心學圖, 9.敬齋箴圖, 10.夙興夜寐箴圖였다. 임금은 그것이 학문하는 데 매우 긴절한 것이라 하여 그것을 병풍으로 만들라고 명하여 이를 보면서 반성하였다. 그때 이황은 돌아갈 뜻을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 「聖學十圖」를 만들어 올리며 ‘제가 나라에 보답할 것은 이 도뿐입니다.’ 하였다.<sup>7)</sup> 이황의 「성학십도」는 이후 임금들이 교대로 治道의 근간으로 삼게 되었다.

퇴계가 기대승에게 「성학십도」를 보내면서 “만약 잘못된 곳이 있으면 지적하여 보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선생은 답하기를 “白鹿洞規圖의 ‘이치의 당연함[理之當然]’ 운운한 곳에는 모두 옆에다 권점을 쳤으면서 ‘之當’ 두 글자에는 권점을 치지 않은 것은 실수인 듯합니다.” 하였고, 또 “여쭙어 볼 일 중 어떤 것은 잊어버려 말씀드릴 수 없고 어떤 것은 추후에 생각해 낸 것이 있으므로 別紙에 기록하였으니 우러러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다.<sup>8)</sup> 퇴계는 「성학십도」의 교정을 기대승에게 부탁했다.

12월 6일 夜對에서 『논어』를 강하고 기대승이 修身·治心에 대해 논하다

7) 『선조(수정실록)』, 1년, 무진(1568, 윤경) 12월 1일(을해) 조항. 참조.

8) 기대승, 『고봉전서』, 「고봉선생년보」, 참조.

가 아뢰었다. 신이 삼가 判府事 李滉을 보건대, 이와 같은 사람은 지금 시대에 드물 것입니다. 상계서도 그러한 내용을 아시고 매우 융숭한 대우를 하시자 대소 신료들이 상계서 현자를 높이는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되어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대체로 그는 나이가 많은데다 병이 깊어 출사하지 못하여 전에 오랫동안 외지에 있었다고 하였다.

퇴계는 틈만 나면 사직하고 싶은 자기의 심정을 임금께 알렸다. 이 당시에 선인문 밖에 가서 차자를 올려 물러갈 것을 빌었으나 허락되지 않다. 얼마 안 있다가 다시 차자를 올려 물러갈 것을 빌었으나 허락되지 않다. 그러던 차에 의정부 우찬성에 제수되었으나 숙배하지 않고, 대궐 밖에 가서 차자를 올려 힘써 사양하니, 드디어 체차하도록 허락하다. 3월 병오, 또 대궐에 들어가서 겸직한 직함까지 모두 체차해 줄 것과 치사하고 시골로 갈 것을 빌었으나 허락되지 않다. 이때에 이르자, 선생은 물러갈 뜻을 이미 결정하였기 때문에 연일 대궐에 들어가서 힘써 사면하러 하였다. 마침 임금이 장차 모의전에서 친히 제사하시게 되었기 때문에, 정원에서는 선생이 그대로 내려갈까 염려하여 제사 지내신 후에 불러 보시고 보내실 것을 아뢰어 청하였으므로, 임금이 注書 俞大脩에게 명하시어 聖旨를 읽게 하였다. 판중추부사에 제수하다. 무신, 대궐에 들어가서 성은에 감사하고, 夜對廳에 입대하여 물러갈 것을 빌어서 허락되다. 왕이 선생을 불러 보시고 머물러 있을 것을 재삼 권하였으나, 선생이 물러갈 것을 더욱 간절하게 빌며 수차례 집요하게 사직상소를 올려서 도산으로 내려가고자 하였다. 드디어 1569년 선조 2년 3월 1일 귀향이 허락되었다.

선조가 夜對廳에 나아가 이황을 인견하고는 治道에 대해 조언하기를 부탁하니, 이황은 出處의 도리, 다스림을 행하는 요지, 학문의 방도를 두루 진달하고 국조의 일과 인재를 임용하는 일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선조가 이르기를, "학문하는 사람 중에 아될 만 한 자가 있지 않은가? 어려워 하지 말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하니, 이황이 아뢰기를, "그 일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지금 어디 한두 사람뿐이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사람이 程子에게 묻기를 '문인들 중에 누가 학문의

도를 얻었는가?’ 하자, 정자는 ‘얻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쉽게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游酢·楊時·謝良佐·張繹·李籲·尹焞 등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얻은 사람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데 더구나 신이 군상을 기만하면서까지 아무개가 얻은 바가 있다고 아뢰 수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기대승이 문자를 많이 보았고 성리학에도 조예가 가장 높으니 通儒입니다. 다만 그는 收斂工夫가 부족한 것이 미진한 점인데 소신이 평상시에 이 점을 부족하게 여겨서 좀더 공부하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자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말은 지당하다. 나로서는 그 만분의 일인들 알 수 있겠는가. 그러나 평상시 그가 문장을 잘 짓는다고 여겼다.”하니, 이황이 아뢰기를, “그의 문장도 역시 쉽지 않습니다.”하였다.<sup>9)</sup>

이황은 선조의 부탁에 당대의 사림 중에 기대승을 천거하였다. 이황은 기대승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여러 사상을 하나로 정리하는 수렴공부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이황이 이런 면에 힘쓰라고 권면하였다고 하였다. 기대승은 퇴계를 당대 최고의 선비라고 임금에게 추천하였고, 퇴계 또한 기대승을 당대에 학문이 가장 깊은 학자로 천거하였던 것이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존경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제관계 이상이었던 것이 여기서 증명된다.

퇴계와 이별하는 순간까지 늘 조정에서 함께 생활했고 가장 가까이에 서 모셔왔던 분은 기대승이었다. 그는 수차례 사직상소를 올려 드디어 귀향하는 퇴계를 끝까지 배려하며 전송하였다. 그의 기록에는 3월 4일에 퇴계 선생을 東湖에서 전송하여 강가의 별장에서 유숙하였으며, 봉은사까지 따라가 송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봉은 이별의 장면을 서술하여 “배위에서 한 절구의 이별시를 드렸다. 또 퇴계 선생이 여덟 수의 절구로 된 「梅花詩」를 꺼내어 고봉에게 보여 주며 화답시를 요구하자, 선생은 또 「매화시」에 화답하여 퇴계 선생에게 보내 드렸다.”<sup>10)</sup> 라고 하였다. 이것을

9)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1569) 3월 1일 을사 1번째 기사. 참조.

10) 기대승, 『고봉전서』, 「고봉선생년보」. 참조.

다시 정리해 보면 퇴계는 1569년 3월1일에 체직한 상태에서 판중추부사를 제수하므로 대궐에 들어가서 성은에 감사하고 물러갈 것을 허락 받았다. 3월 1일 夜對廳에 입대하여 선조 임금의 물음에 답하고 조정의 여러 가지 정치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 후 집을 정리하고 3월3일 매화분과 이별을 고하면서 시를 짓는다. 정오 때에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하고 궁궐에서 물러나와 나와 동호의 몽퇴정에서 잤다. 3월4일 奉恩寺에서 머물렀다. 이때 고봉은 봉은사까지 따라와서 같이 이별주를 마시고 같이 자면서 「분매」시를 지어 올렸다. 그리고 다음날 3월 5일 광진의 송파나루에서 배로 한강을 건너면서 여러 선비들과 이별의 정을 나누었다. 이것은 왕조실록을 참고하고 문집을 참고하여 당시의 일정을 정리해 본 것이다. 그러나 문집들 간의 기록된 날짜가 다소 상이하여 다소의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이황이 귀향할 때 名士들이 서울을 비우다시피 모두 나와 전송을 하면서 시를 읊어 작별의 정을 나누었다. 이황이 奇大升·朴淳 두 사람의 시에 화답하고 여러 사람과 작별을 하면서 시를 지었는데, 그 시에 '가련하다 여러 성조에 은총을 받은 몸이 부질없이 일곱 차례나 조정을 오갔네[可憐異代承恩渥空作區區七往還]'라는 구절이 있었다.<sup>11)</sup> 기대승이 퇴계선생을 이별하며 절구 한 수를 지어 올렸다는 것은 이 시이다.

「퇴계 선생의 이별에 부쳐(奉別退溪先生)」

江漢滔滔萬古流	한강은 도도하게 만고에 흘러
先生此去若爲留	선생의 떠남을 만류하려는 듯
沙邊拽纜遲徊處	백사장에서 닻줄 부여잡고 머물던 곳
不盡離腸萬斛愁	이별의 아픈 시름은 끝이 없어라

이 시는 퇴계를 이별하기 위해 모인 여러 선비들이 시를 짓는 序가 되

11) 『선조수정실록』, 권3, 선조 2년(1569) 3월 1일 을사 1번째 기사. 참조.

었다. 선비들은 이 시에 운자를 활용하여 시를 지었다. 기대승은 첫 구절의 '萬古'는 '日夜'로 고치고자 한다.<sup>12)</sup> 하였다. '한강은 도도하게 주야로 흘러 선생의 떠남을 만류하려는 듯으로 고쳐보니 '日夜'가 더욱 좋다.

이 때 떠나는 배에까지 올라와 전송하는 기대승에게 퇴계는 품속에서 그가 쓴 매화시 8수를 꺼내 주면서 화답해 달라고 한다. 이것은 지난밤 봉은사에서 같이 자면서 이별주를 밤새마실 때 기대승이 지어준 매화시의 화답이었다. 이것은 선비의 수많은 이별 스토리 중에 한 획을 긋는 명 장면이었다.

퇴계 선생도 기대승의 운을 따라 다음과 같이 시를 지어 보았다.

列坐方舟盡勝流	나란히 앉으니 배도 흐름을 못이기는 듯
歸心終日爲牽留	돌아가려는 마음은 종일토록 머물고 있네
願將漢水添行硯	원컨대 저 한강물 벼루에 담아서
寫出臨分無限愁	이별의 한없는 시름 다 쏟아 내었으면 <sup>13)</sup>

이때 유성룡은 외직으로 나가 있었고 김성일이 퇴계 선생을 東湖에서 전송하였다. 학봉의 기록에는 다음과 같이 이날의 전경이 기록되어 있었다.

조정の名士들이 모두 나와 전별하면서 각자 시를 지어 주면서 작별하였다. 그러자 학봉이 강가에서 高峯 奇大升의 韻을 차운하여 퇴계 선생의 행차에 절구 두수를 지어 바쳤다. 기사년 (1569년, 3월).

「江上 次奇高峯大升韻 伏呈退溪先生行史 二首 己巳」

仙舟一葉溯江流	선생이 탄 배가 강을 거슬러 떠나가니
風送歸帆不暫留	바람은 가는 돛배를 잠시도 멈추지 않네
進退行違元筭定	나아갔다가 물러남은 원래부터 생각한 것
臨歧莫用枉生愁	떠나는 길에 쓸데없이 걱정하지 마시라

12) 기대승, 『高峯全書』, 속집, 권1, 「存齋謄錄」, 「奉別退溪先生」.

13) 『대동야승』, 「해동잡록5 본조」, 「李滉」. 참조.

末路無人退急流	말로에 몰려난 이 없는데 급류처럼 몰려나니
名韉挽得幾人留	명리의 굴레에 머무는 이 몇 사람인가
此行綽綽無餘憾	이번의 행차는 여유로워 유감은 없으나
一念猶關去國愁	떠나가는 일념 속엔 도리어 나라 근심 있다네 <sup>14)</sup>

위 시에서 학봉은 고봉 기대승의 이별시에 차운하였다. 떠나가시는 퇴계 선생을 한강 가에서 전송하면서 선생의 마음속엔 나라를 위한 일념이 남아있다고 하여 그냥 조정이 싫어서 사사로이 떠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귀향길에 오른 퇴계를 그의 제자 백담 구봉령은 부포에서 맞이하며 전송하였다. 이때 「부포에서 퇴계 선생을 전송하고 기고봉의 시에 차운하여 시를 지었다. 그 시 「送退溪先生于釜浦 次奇高峯明彦韻」은 다음과 같다.

浩蕩雲帆放玉流	드넓은 구름 돛을 옥 물결에 띄우니
故山歸興更誰留	고향으로 돌아가는 흥 누가 다시 만류하랴
當筵豈獨分離恨	송별 자리에 어찌 이별의 한 뿐이겠는가
看取蒼生望裏愁	고생하는 백성들을 보며 시름겨워 하네 <sup>15)</sup>

퇴계는 조정대신들의 전송을 받으며 귀향하면서도 퇴계는 간간이 보이는 백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수심에 겨워했던 모양이다. 여기에서도 퇴계가 조정을 사사로이 싫어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퇴계가 중요한 때 사직하는 미안함과 우국애민의 선비의식을 드러내고 있었던 상황이 포착된다.

퇴계가 귀향길에 오를 때 이별의 시를 지어 올린 문사들은 여기에 모두 수록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이 이별의 시첩은 기대승의 시가 중심이 되고 있었다. 퇴계와 기대승의 관계는 퇴계의 제자들도 인정하고 응원하

14) 김성일, 『학봉집』, 권1, 시, 「江上 次奇高峯大升韻 伏呈退溪先生行史 二首 己巳」.

15) 具鳳齡, 『백담집』, 속집, 권2, 七言絕句, 「送退溪先生于釜浦 次奇高峯明彦韻」

는 관계였다. 퇴계가 만년에 조정으로 향한 것도 기대승이 조정에서 퇴계 선생을 모셔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 때문이었다. 그런 만큼 기대승은 끝까지 퇴계의 귀향을 만류하고 있었다. 이상으로 퇴계와 고봉의 첫 만남에서부터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를 조명해 보았다. 마지막 이별의 배 안에서 퇴계는 고봉에게 매화시 8수를 주면서 화답을 부탁했다.

### Ⅲ. 퇴계와 고봉의 매화시 화답의 미의식 분석

#### 1. 퇴계와 고봉의 매화시 화답에 대한 발단

퇴계는 수많은 매화시 중에 왜 이 8수를 주었을까? 이 8수에 함의된 사연은 무엇일까? 이것은 퇴계 매화시 연구의 또 다른 과제이다.

기대승의 문집을 탐색한 결과 이날 봉은사에서 퇴계와 함께 유숙하며 함께 이별주를 마시며 술이 거나 했을 때 기대승은 퇴계에게 매화에 대한 시를 지어 바쳤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기대승의 『存齋漫錄』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賦退溪先生乾川洞寓第盆梅 用龜山者宮觀梅韻  
 缺盆培植護風缺 嫩蕊疏枝不露鋒 記得夜深燈火缺 缺缺缺在酒杯中  
 三月初四日 追拜奉恩仍書呈<sup>16)</sup>

이것이 한국고전번역원 번역에서는 「퇴계 선생이 우거하는 건천동 집의 매화 화분을 두고 짓다[賦退溪先生乾川洞寓第盆梅]」 龜山 楊時의 「渚宮觀梅」의 韻을 사용하다.

16) 기대승, 『高峯全書』, 속집, 권1, 「存齋漫錄」, 「賦退溪先生乾川洞寓第盆梅 用龜山者宮觀梅韻」.

□盆培植護風□	-원문 빠짐- 동이에 길러 바람 -원문 빠짐- 가려 주니
嫩藥疏枝不露鋒	연한 꽃잎 영성한 가지 진면목 드러내지 않네
記得夜深燈火□	밤 깊고 등잔불 -원문 빠짐- 기억하니
□□□在酒杯中	-원문 빠짐- 술잔 가운데 있네

라고 하였다. 이 시를 고찰해보니 여기에는 잘못 수습된 점이 발견되었다. 첫구의 風자는 운자로 쓰인 것이다. 그것을 바로잡으며 다시 정리해 본다. 퇴계 선생이 우거하는 집은 건천동(지금 서울 중구 인현동)에 있었다. 기대승이 운으로 사용한 「저궁매화」시를 찾아보았다. 이것은 龜山 楊時의 시 「觀梅曾胡康侯」라는 시였다. 宋나라 劉克莊의 『后村詩話』에

欲驅殘臘變春風	쇠잔한 선달을 몰아내고 춘풍으로 변하니
只有寒梅作選鋒	오직 차가운 매화 선봉으로 뽑혔네
莫把疎英輕鬪雪	설익은 꽃망울로 눈과 다투지 말고
好藏清艷月明中	맑고 고운자질 밝은 달 속에 감추시게

이것을 바탕으로 기대승의 원시를 복원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시의 운자는 風, 鋒, 中이다. 첫째 구를 분석해 보면 '□盆培植護風□'은 잘못 수습되었다. 운자가 風이니 마땅히 □盆培植護□風 이렇게 해야 하고, 시적 정황을 추론해서 퍼즐 맞추기를 해보면 "화분에 매화를 정성스레 심고 가꾸며 차갑고 세찬 바람으로부터 보호해 주었다"는 것으로 起句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嫩藥疏枝不露鋒은 오전하게 전하니 어린 매화의 꽃눈이 성근 가지 속에 움이 트고 있는 정황을 承句를 이어갔다. 轉句에서 '記得夜深燈火□' 야심한 밤 등불아래 무얼 그리도 골똘히 생각할까? 기대승은 퇴계가 무엇을 한다고 상상했을까? 고향을 생각하며 도산의 매화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는 수심을 묘사해 내고자 했을 것 같기도 하다. 結句 '□□□在酒杯中' 무엇이 술잔 속에 있다고 표현했을까? 어느덧 화분의 매화가 피어 향기를 발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도산의 매화 향기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윽한 매화향기 술잔 속에 있네'로 마무리를 해보았다.

□盆培植護□風	화분에 매화를 심고 정성들여 기르니
嫩蕊疏枝不露鋒	어린 꽃눈 성근 가지에 감추고 있네
記得夜深燈火□	깊은 밤 등잔불 아래 골똘한 생각
□□□在酒杯中	그윽한 매화 향기 술잔 속에 있네

이 시 끝에는 '三月初四日 追拜奉恩(仍書呈)'(삼월 초나흘 봉은사까지 따라 가서 전송하였다. 그 자리에서 시를 지어 올렸다.)라는 주가 달려 있다. 기대승은 3월 4일 이시를 봉은사에서 퇴계에게 지어 바쳤다고 하였다. 기대승은 미리 이시를 준비하였던 것인가? 퇴계가 기대승에게 준 8수 중 <제7수>, 「한성 우사에서 분매와 증답하다 漢城寓舍 盆梅贈答」

頓有梅仙伴我涼	매화 신선 쓸쓸한 나의 짝이 되어주니
客愁瀟灑夢魂香	객창은 상쾌하고 꿈속 혼이 향기롭네
東行恨未携君去	돌아오는 길에 함께 못해 한스러우니
京洛塵中好艷藏	서울 풍진 속에서도 고이 잘 있으세요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를 붙여 두었다.

“기사년 모춘 3일 溪老. 나의 고향 예안은 영남의 가장 북쪽에 있다. 육로로 문경새재를 경유하여 가면 南行이라 하고 수로로 竹嶺을 경유해서 돌아 가면 東行이라 하니, 모두 예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己巳暮春三日 溪老 吾鄉禮安 在嶺南最北 陸路由鳥嶺而行則曰南行 水路由竹嶺而歸則曰東行 皆指禮安言也]”라고 하였다. 기대승은 이 시를 보았을까? 그리고 그 다음날 퇴계에게 지어준 것인가? 이 시를 짓게 된 동기가 궁금하지만 기대승은 봉은사에서 이별의 시로 이 「盆梅」를 주제로 시를 지어 퇴계에게 바쳤다.

퇴계집을 뒤져서 이 시의 차운시를 발견하였다. 운자를 비교해 보니 이 시가 맞다. 퇴계는 이 시를 받고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次韻奇明彥追和盆梅詩見寄」

任他饜虐雪兼風	그대를 북풍한설 속에 그냥 두고 오니
窓裏清孤不接鋒	창가에 맑고 고독한 꽃 바라보지 못하네

歸臥故山思不歇  
仙眞可惜在塵中

고향 산천 돌아와도 그리움 그치지 않으니  
신선의 청진함이 티끌 속에 있음이 슬프구나<sup>17)</sup>

기대승은 이 시를 받고 또 시를 지어 보낸다. 「盆梅」의 ‘풍’ 자 운을 아  
울러 화답해 보여 주셨기에 감사하고 송구함을 말할 수 없어 감히 또 차  
운하여 이 마음을 털어놓았다[盆梅風字韻 併蒙和示 感悚難言 敢又步韻 以  
罄下情]

耿霧擒春正溜風  
化工何意漏機鋒  
幽人靜對神相契  
玉骨冰魂寂寞中

맑은 안개 봄을 감싸고 바람을 씻는 구나  
조물주는 무슨 뜻으로 천기<sup>18)</sup>를 누설하는가  
그윽한 사람 조용히 대해 신교를 맺으니  
옥 같은 풍골 얼음 같은 혼 적막 속에 있네<sup>19)</sup>

이 시는 1569(선조2) 4월 15일에 쓴 것이다. 기대승은 퇴계가 매화를 幽  
人으로 의인화하고 매화와 신교를 맺고 있다고 하였다. 퇴계는 「盆梅」를  
바라보며 고요하게 떠올리는 여인의 형상이 있다. 기대승은 퇴계가 매화  
화분을 아끼는 이유와 이 酷愛하는 여인이 누구인 줄 기대승은 알고 있  
었다. 이렇게 아끼던 매화 화분을 두고 떠나는 퇴계의 아픈 마음을 기대  
승은 잘 묘사했다. 그 매화 화분이 적막 속에 있음을 상기시키며 퇴계가  
한양에 더 머물기를 바라는 이별의 정한이 함의되어 있다. 퇴계는 이 분  
매시의 화답으로 시를 생각하다가 지금까지 자기가 지었던 매화시 중에  
서 8수를 가려내어 그 다음날 헤어지는 배 위에서 기대승에게 주고 화답  
을 부탁하였다. 이 기대승의 「盆梅」시가 발단이 되어 퇴계가 기대승에게  
매화시 8수를 주었을 것 같다. 퇴계는 왜 이 매화시 8수를 주었을까? 그  
의문은 성글지만 이렇게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17) 李滉 『退溪先生文集』, 卷5, 續內集, 詩, 「次韻奇明彥追和盆梅詩見寄」.

18) 機鋒 : 천지조화의 신묘함을 뜻한다. 기는 쇠뇌의 어금니로 시위에 거는 것이고 붕은  
화살촉이니, 일촉즉발(一觸即發)로 한번 당기기만 하면 붙잡을 수 없는 형세를 말한다.  
禪語의 계발이 그와 같이 신속함을 비유한 불교 용어이다.

19) 기대승, 『고봉속집』 권1, 「存齋漫錄」, 「盆梅風字韻 併蒙和示 感悚難言 敢又步韻 以罄下情」.

기대승은 퇴계에게 매화시 8수를 화답해서 부치면서 다음과 같이 편지하였다.

한강가의 이별이 꿈결처럼 아득하더니, 양근(楊根; 지금의 양평)에서 돌아온 金別坐에게 선생의 모습을 듣고는 슬프고 그리운 마음 갑절이나 더했습니다. 그 뒤 뱃길로 내려가면서 건강은 어떠하셨는지요? 송양하고 사모하는 마음은 말로 다하기 어렵습니다. 지금쯤은 이미 고향 가까이 가셨을 것이니 귀향의 흥취가 더욱 아름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근근이 몸만 보존하고 있을 뿐이니 다른 것은 말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마는, 매양 모시게 될 날이 멀어졌음을 생각할 적마다 저의 마음이 절로 슬퍼집니다.

그때 주신 梅花詩를 보고 삼가 ‘尤’韻을 사용하여 저의 생각을 편詩 한 편을 올리니 웃으며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많은 생각을 글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정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절하며 글월 올립니다. 1569, 3월 15일 후학 大升 배상<sup>20)</sup>.

퇴계는 이 편지에 대한 답장을 다음과 같이 보냈다.

東湖의 배 위에서 정답게 얘기했던 것이 꿈결 속에 되살아나는데, 저를 전승하느라 봉은사까지 따라와서 하룻밤을 같이 묵은 것은 그 뜻이 더욱 깊었습니다. 각기 술에 취하여 서로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없이 그千里의 이별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편지와 시를 받으니 다시 얼굴을 대하는 듯하여 지극히 위로되고 행복함을 말로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驪江(여주)을 지나면서부터 폭우로 인하여 뱃길이 매우 험난하여서 충주에서 내려 육지로 올라 눈 덮인 길을 걸어 고개를 넘어왔는데도 달리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고향 산천에 돌아와 보니 한창 바쁜 농사일이 마치 나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여 이 또한 뜻을 붙일 만하였습니다. 「후략」, 1569년, 선조2 4월 2일 황(滢) 돈(頓).

“전에 남겨두었던 「梅花詩」 8수의 절구는 각각 감흥이 담겨 있기는 해도 다 희작에 가까운데, 뜻밖에 화답하여 천 리 밖에 있는 나에게 부쳐 주었으니, 서로 사모하는 뜻을 그 속에서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 실로 깊습니다. 최근 도

20) 기대승, 『고봉전서』, 「양선생왕복서」 권3, 첫 번째 편지.

산으로 돌아와서 매화를 보고 또 2절의 시를 지었는데, 대감에게 숨기고 싶지 않아 다시 써서 보내니, 한번 웃어 주십시오.<sup>21)</sup> 라고 하였다.

퇴계는 이 편지 끝에 기대승에게 준 매화시에 대해 희작에 가까운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 편지로 보면 기대승은 3월 15일 편지에서 퇴계가 준 매화시에 대한 화답의 시를 보내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퇴계가 도산에 돌아와 기대승의 편지를 읽고 두 편의 절구를 지어서 고봉에게 보냈다는 시를 퇴계집을 뒤져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은 시가 있었다.

「季春 至陶山 山梅贈答 二首」

梅贈主 「매화가 주인에게」

寵榮聲利豈君宜	조정의 명리가 어찌 그대에게 어울리랴
白首趨塵隔歲思	백발로 풍진 속에 해마다 바라시더니
此日幸蒙天許退	이날에야 드디어 귀향을 허락받았으니
況來當我發春時	더구나 우리가 만발한 봄에 오시었구려

主答 「주인이 매화에게」

非緣和鼎得君宜	벼슬 때문에 그대들과 사친 게 아니라
酷愛清芬自詠思	맑은 향기 혹애하여 절로 읊었네
今我已能來赴約	지금에야 약속 지키러 달려왔으니
不應嫌我負明時	태평성대 저버렸다 욕하지는 마오

이 시를 발견하여 번역해 보니 그 정황이 맞아 들어간다. 퇴계가 기대승에게 준 매화시는 매화를 연인으로 의인화한 대화식 상상력이었다. 퇴계는 이 두 수도 그 매화시에 이어 문답식으로 이어나간 것이었다. 퇴계는 기대승에게 이 두수의 시를 보내면서 이별의 매화시 화답에 대한 소회를 마무리 한다. 이 시에 나온 和鼎. 이것은 鼎實로써 나라를 다스리는

21) 기대승, 『고봉전서』, 「양선생왕복서」 권3, 두 번째 편지.

재상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퇴계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書經』 「說命下」에서 高宗이 傅說에게 “내가 국을 조리하거든 네가 소금과 매실이 되라.[若作和羹 爾惟鹽梅]” 한 데서 유래하였다. 여기서는 기대승에게 부엌과 같은 충애받는 충신이 되라는 격려의 의미가 있는 듯하다. 퇴계는 매화와 사귄 것이 이 열매 때문이 아니라 매화의 淸芬 때문에 흑애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한다면 퇴계는 매실의 열매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꽃의 맑은 정취를 사랑한 것이다. 퇴계는 애초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다가 지금에서야 관직에서 물러나 도산으로 오게 되었다. 그러나 조정의 구설수를 의식하며 태평성대에 관직을 버렸다고 욕하지 말라고 세상을 향한 당부가 함의 되어 있다. 퇴계는 기대승에게 화답시에 대한 화답을 그 당시 상황을 형상화하여 정성스레 부쳐주고 있었다.

## 2. 고통이 화답한 매화시 8수의 분석

기대승의 『고봉속집』 제1권, 「存齋謾錄」에는 퇴계에게 받았던 8수의 매화시에 화답한 것이 있다. 「仰次退溪先生梅花詩」 칠언절구 8수가 그것이다. 이것을 저본으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退溪先生梅花詩 8수」를 살펴보자. 이 8수는 각기 다른 시기에 2수씩 네 번 지어진 것이다. 첫 번째 두수 제1, 2수는 독서당의 망호당 앞에 핀 매화를 읊은 것이고, 제3, 4수는 예천 동헌의 뜰에 핀 매화를 읊은 것이고, 제5, 6수는 예천에서 도산으로 돌아가 도산의 매화를 보고 지은 것이고, 제7, 8수는 서울에 우거하면서 매화 화분을 보면서 지은 것이다. 이들 시들은 매화를 의인화한 대화체 형식이었다.

「퇴계 선생의 매화시에 우러러 차운하다(仰次退溪先生梅花詩)」 칠언절구 8수<sup>22)</sup>

처음 1,2수는 독서당 동호의 망호당 아래에 핀 매화 한 그루를 보고 쓴 것이다.

22) 기대승, 『고봉속집』 권1, 「存齋謾錄」, 「仰次退溪先生梅花詩」.

<제1수>

東湖의 望湖堂에 매화 한 그루가 아주 아름다웠다. 기대승은 을묘년(1555, 명종10) 仲春 남쪽으로 떠나는 날에 막 꽃이 피어남을 만나 술을 가지고 찾아가서 시 두 수를 쓰고 떠났다고 부제를 남겼다.

望湖堂裏一株梅	망호당 가운데 한 그루 매화
幾度尋春走馬來	널 보자고 몇 번이나 달려왔던가
千里南行難負汝	천리 남행에 너를 잊기 어려워서
敲門更作玉山頰	다시 또 찾아와 술에 취해 누웠네

이 시는 「망호당에서 매화를 심방하다(望湖堂尋梅)」라는 제목이다. 망호당은 한강 주변 동호의 독서당의 부속 건물이다. 퇴계는 1541년에 이곳에서 사가독서를 하였다. 퇴계는 이때부터 이 호당에 핀 매화를 너무 좋아했다. 퇴계는 그 후로도 자주 이곳을 찾았다. 일부러 매화가 필 때면 이 호당의 매화를 보기 위해 올라오기도 하였다. 1545년에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퇴계는 물러날 뜻을 굳히고 1546년 2월에 귀향을 결심한다. 이때 호당을 다시 찾아와 지은 것이다.

여기서는 1555년에 퇴계가 또 호당에 찾아가 이 매화를 보고 지은 것으로 되어 있다. 퇴계는 독서당의 매화를 너무喜爱하였다. 이렇게 놓고 보면 퇴계는 매화가 필썸이면 벼슬도 마다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곤 하였던 것 같다. 퇴계의 마지막 귀향길이었던 1569년 3월 4일 이날도 봄이었다. 궁궐에서 하직하고 나와서 하루 밤을 잔 것도 호당의 몽퇴정이었다. 이때도 틀림없이 이 매화나무를 쓰다듬으며 품에 안고 잤을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매화나무와 마지막 이별을 하기 위해서 었을 것이다. 퇴계는 41세에 호당의 매화를 처음 보고 그 이후 평생 동안 이 매화에 꽂혀서 살았다. 이 시에서도 밝혔듯이 “망호당 가운데 한 그루 매화 널 보자고 몇 번이나 달려왔던가?”라고 소회를 밝혔듯 퇴계는 자주 이 매화를 찾아 왔었다. 석별의 정에 못이겨 술을 먹고 玉山頰<sup>23)</sup>가 된 것이다. 玉山頰는 술에

23) 玉山頰 : “嵇康의 자태가 마치 외로운 소나무가 홀로 선 것처럼 빼어나 그가 술에 취해서

취해서 몸을 가누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매화에 얽힌 사연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매화를 혹애 했던가?

퇴계는 33세 때 경남의령의 처가에 들렀다가 정원에 핀 매화를 보고 27세의 이른 나이에 죽은 허씨 부인을 못 잊어 그 사랑을 매화에게 붙였다. 허씨 부인은 정숙하고 아름다운 미인이었다. 퇴계의 매화사랑엔 허씨 부인의 형상이 함의 되어 있었다. 그 이후 퇴계의 매화시에는 여인의 이미지와 혹애의 정이 함의되기 시작했다고 혹자는 논문에서 밝히고 있다.<sup>24)</sup>

퇴계는 동호 망호당의 매화를 지극히도 사랑했다. 퇴계는 기대승에게 이 시를 주면서 화답을 요구했다.

퇴계의 이 시에 기대승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先生幽契託寒梅	선생의 그윽한 사랑 매화에 의탁하고
京洛風塵偶獨來	서울의 풍진 속에 우연히 홀로 왔네
歸興浩然春不暮	돌아갈 흥 호연하고 봄은 아직 한창인데
定憐疏景懣摧頹	어여빠라 성긴 그림자 쓰러진 이 위로하네

이 시구에 幽契는 매화와 약속한 그윽한 교분, 그리움, 연정이라고 생각했다. 퇴계가 망호당 매화를 사랑하는 이유는 퇴계가 마음속에 은밀하게 품은 고결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대승은 알고 있었던 것일까? 따라서 幽契는 눈여겨 볼 이 시의 詩眼이다. 서울 호당에서 옛날에 보았던 매화를 못 잊어 해마다 홀로 서울에 왔다. 호당의 매화와 이별하려니 그 정에 못이겨 술에 취해 누웠는데 성긴 매화그림자가 퇴계의 몸을 어루만지며 위로해 준다고 표현했다. 이들 시에는 깊은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듯하다. 기고봉은 매화가 필 때쯤이면 호당의 매화를 보기위해 퇴계는 서울에 있던 도산에 있든 보러온다고 보고 있다. 끝 구절 '어여빠라 성긴 그림자 쓰러

넘어지면 옥으로 된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다." 하였다. 『世說新語』, 「容止」. 여기서는 퇴계가 매화를 이별하매 석별의 정을 못 잊어 술을 먹고 잔뜩 취했음을 말한 것이다.  
24) 신두환(2017).

진 이 위로하네'는 매화의 성긴 그림자가 술 취해 쓰러진 퇴계를 보호해주고 있다고 보았다. 기대승은 퇴계와 호당의 매화가 그윽한 교분이 있는 것을 알아차린 것 같다. 기대승은 퇴계의 매화시를 속속들이 모두 이해하고 있는 바탕 위에서 지은 것 같다. 퇴계가 이 봄에 도산 육우당의 매화친구와 약속을 지키려고 도산의 매화들을 돌보러 떠나간다. 퇴계는 봄만 되면 벼슬도 팽개치고 도산으로 내달린다. 기대승은 퇴계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퇴계의 매화시에는 평소의 선비스러운 모습에서 정도를 넘는 후애의 사랑이 있다.

<제2수> 또한 동호 독서당에 핀 매화를 읊은 것이었다.

聞道湖邊已放梅  
銀鞍豪客不曾來  
獨憐憔悴南行客  
一醉同君抵日顏

소문에 들으니 망호당에 매화 활짝 피었다는데  
은장식에 말탄 호걸들은 찾아온 이 없다하네  
초췌한 남쪽 나그네만이 유독 그를 사랑하여  
종일토록 그대와 함께 쓰러질 때까지 마셨네

제2수는 「재차 앞의 운을 써서 경열에게 답하다(再用前韻答景說)」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민경열은 조선 중기 명종 때의 문신으로 김안국의 문인이었고 『중종실록』 편찬에 참여했다. 경상도 암행어사, 형조·이조 판서, 우참찬을 거쳐 우의정에 이르렀다. 학자로 이름이 높았고 문장에 능하였다. 퇴계는 민경열의 시에 화답하면서 이 시를 지었다. 이 시도 46세에 지은 것이다. 비록 답시로 지은 것이지만 퇴계는 자기의 독서당 매화사랑을 은근히 남에게 피력하였다. 마치 독서당 매화는 나의 사랑이니 함부로 넘보지 말라는 뜻처럼 들리기도 한다. 이 시도 앞의 시와 같은 정서로 쓰인 시이다. 퇴계가 만년에 도산의 절우사에 매화를 심은 뜻은 호당의 매화와 모종의 관계가 있는 듯하다. 퇴계는 호당의 매화가 필쫓이면 도산의 절우사에 심은 매화들을 돌보러 가야 한다는 생각에 빠지곤 했던 것 같다. 퇴계가 봄이오면 남행하려는 뜻은 매화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퇴계는 이 시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이 8수를 펴놓고 독서당의 매

화와 마지막 이별을 하기위해서 독서당 몽뢰정에서 잠을 잤던 것은 아닐까? 퇴계는 호걸들이 매화를 사랑하는 것과 자기가 매화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구별하여 밝힌 것이다. 퇴계는 독서당 매화는 봄이 되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퇴계는 자기만이 이 매화나무를 사랑한다고 믿고 자기의 매화나무로 만들었다. 남쪽으로 떠나면서 그 동안 이 매화를 찾은 것이 몇 번이었던가?

기대승은 이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晴牕深著一枝梅	맑은 창 깊숙한 곳 한 가지 매화
不許遊蜂取次來	노나니 벌 찾아옴 허락지 않네
今日別懷空自苦	오늘의 이별 부질없이 괴로워
百觴澆下任歎頹	백 잔 술 들이키고 흠뻑 취했네

기대승은 퇴계가 사랑하는 동호 독서당 안에 있는 망호당 앞의 매화나무를 잘 알고 있었다. 의 이 시를 충분히 이해하고 화답의 시를 구상했다. 지조를 함부로 팔지 않는 독서당 매화는 퇴계의 매화였다. 퇴계가 망호당 매화에게 고하는 마지막 이별의 괴로움을 기대승은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의 화답시는 퇴계의 정서와 일치한다. 이 매화는 노나니 벌 함부로 찾아 드는 것 허락지 않는다. 기대승은 퇴계의 시에 내용에 알맞게 화답했다. 퇴계의 시에 화답한 기대승의 시는 그 정서까지도 일치한다. 기대승은 누구보다도 퇴계의 이 매화시에 얽힌 사연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퇴계는 이 매화나무를 잘 보살펴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기대승은 알았다고 답한다.

제3, 4수는 퇴계가 1566년(명종21) 중춘에 어명을 받고 사양의 뜻을 빌며 예천 동헌에 머물면서 프락의 매화에게 묻는 시이다.[丙寅仲春 乞辭召命 留醴泉東軒 問庭梅] 그는 명종의 어명을 받고 서울로 올라가다가 병이

나서 올라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정황을 써서 사직 상소를 올리고 예천에 머물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매화 시 두 수를 지은 것이다.

45년(병인) 66세 1월, 부름을 받고 서쪽으로 가다가, 영주에 도착해서 병으로 사직을 구하는 상소를 올리고, 풍기에 가서 머무르면서 왕명을 기다렸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명종은 교지를 내려서, “경의 상소를 보니, 내 마음이 섭섭하다. 사직하지 말고 잘 조리해서 올라와서 여러 번 부르는 나의 정성을 저버리지 말라.” 하고는, 또 연로의 각읍에 명하여 보호하게 하고, 내의에게 약을 주어 문병하게 하였다. 재차 상소를 올렸다. 풍기에서 예천에 이르러 또 상소를 올려 사면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하지 않고 자헌대부 공조판서 겸 예문관제학으로 승진 임명하자 또 상소를 올렸다.<sup>25)</sup>

제3수는 매화에게 물은 것이고, 제4수는 매화의 답을 상상한 것이다. 이 시는 문답식이다.

<제3수>

「병인년(1566, 명종21) 중춘에 소명의 사면을 빌며 예천 동헌에 머물면서 丙寅仲春 乞辭召命 留體泉東軒 問庭梅」<sup>26)</sup>

風流從古說孤山	풍류는 예부터 고산을 말하는데
底事移來郡圃間	어인 일로 관아의 뜰로 옮겨 왔는가
料得亦爲名所誤	그 명성 그르친 것 깨닫게 한 것이니
莫欺吾老困名關	내가 그의 명성만 따진다고 욕하지 말라

『퇴계집』에는 「정자중의 서한을 받아보고 진퇴가 어려움을 더욱 한탄하여 관아의 뜰에 있는 매화에게 읊조리며 묻는다(得鄭子中書 益歎進退之難 吟問庭梅)」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데, 편지에 승진하여 벼슬을 내린 것을 말했다.[書言陞拜事]라고 적혀 있다. 제목은 줄여서 「問庭梅」로 해도 무방해 보인다. 기구의 ‘風流從古說孤山’이 ‘梅花孤絕稱孤山’으로, 전구의 ‘料得亦爲

25) 이항, 『퇴계집』, 「퇴계선생년보」 권2.

26) 기대승, 『고봉속집』 권1, 「存齋謄錄」, 「仰次退溪先生梅花詩」.

名所誤가 '畢境自爲名所誤'로 되어 있다.<sup>27)</sup> 제목의 정자중은 퇴계의 문인인 정유일을 말하며, 시에서 孤山은 송나라 때 은자인 林逋를 가리킨다. 그는 향주 서호의 고산에 은거하여 20년 동안 城市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으며, 매화와 학을 사랑하여 '梅妻鶴子'로 삼고 살았다.『宋史』 卷457 「林逋列傳」 퇴계는 매화와 관련하여 송나라 은자인 고산 임포를 매우 숭앙하여 尙友千古하였다. 퇴계의 매화시 곳곳에 孤山의 매화시를 전고로 사용하고 있다.

예천군의 동헌 뜰에 핀 매화를 보고 퇴계는 孤山의 매화를 생각하며 시상을 전개했다. 은자가 즐기는 고산에 있어야 할 매화가 관아의 뜰에 있을 수 있는가? 매화야 내가 그 고산을 생각하며 고산의 매화만 존중하고 관아의 뜰에 핀 매화를 따져서 너를 없신여긴다고 생각지 말라는 시상이다. 이것은 벼슬에 뜻이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조정관리 중에는 퇴계가 도산에 은거하여 세상에 나오지 않는 것을 두고 비난하는 자들이 있었다. 퇴계는 상우천고하며 자연에 묻혀 조용히 사는 자신의 삶에 대해 '사람들이여 비난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뜻이 함의 되어 있다.

퇴계가 준 이 시에 기대승의 화답한 시는 다음과 같다.

公欲尋梅返舊山	공은 매화 찾아 옛 산으로 돌아가려하고
我貪榮祿滯塵間	나는 녹봉을 탐해 풍진 속에 매여있네
燒香繫纜知何處	향 피우고 닻줄 매는 곳 어드메나
風雨冥冥獨掩關	비바람 어둑한데 홀로 사립문을 닫겠지

기대승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을 퇴계를 생각한다. 3월 10일에 비바람이 심했는데 멀리 간 배를 생각하며 홀로 깊은 방에 있으면서 이런 말을 썼다고 하였다. 벼슬을 초개 같이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퇴계 선생을 생각하며 자신의 인생을 한 번 돌아본다. 이 시 속에 함의된 퇴계의 삶을

27) 李滉 『退溪集』 卷4, 詩, 「得鄭子中書 益歎進退之難 吟問庭梅 書言陞拜事」, 「梅花孤絕稱孤山 底事移來郡圃間 畢竟自爲名所誤 莫欺吾老困名關。」

기대승은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폭풍우 속에 배는 잘 가고 있는지 퇴계의 노정을 상상하며 걱정하는 마음이 불현 듯 일어난다. 기대승의 퇴계를 존모하는 마음이 어떠한 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제4수>

「매화가 대답하다(梅花答)」

我從官圃憶湖山	나는 관아의 뜰에서 고산을 생각하고
君夢雲溪客枕間	그대는 객관에서 운계를 꿈꾸겠지
一笑相逢天所借	서로 만나 웃게 한 것 하늘의 뜻
不須仙鶴共柴關	사립문에 선학이 없은들 어떠하리

앞의 시에서 묻고 뒤에 시에서는 답하는 형식이다. 「매화가 대답하다」 이 시는 『퇴계집』 권4에 「매화를 대신하여 대답하다(代梅花答)」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기구의 '湖山'이 '孤山'으로 되어 있으며, 절구의 빠진 글자는 '鶴'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선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매화는 관아의 뜰에서 고산을 생각하고, 퇴계 당신은 관아의 객관에 머물면서 구름 낀 계곡을 꿈꾸겠지, 그러나 이렇게 만나는 것도 인연인데 굳이 이것저것 따질 일이 무엇 있냐고 답하는 것 같다.

이시에 기대승은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湖上荒廬倚碧山	호수가 오두막 푸른 산 의지하니
瘦梅脩竹映牕間	여윈 매화 긴 대나무 창사이로 비친다
祇今春信應如舊	지금도 봄소식 옛날과 같으리니
愧我功名未透關	부끄러워라 공명은 관문을 못 뚫었네

도산에서 매화와 대나무를 즐기고 있을 퇴계를 상상하며 지은 시이다. 퇴계는 봄마다 매화를 즐기는데 자신은 아직도 조정에 있으면서 공명을 떨치지 못했다고 자괴하고 있다.

제5수와 6수 두 편은, 예천에서 돌아와 도산의 매화에게 문답한 시이다.

선생은 승직되었다는 말을 듣고 예천으로부터 학가산 광흥사로 들어갔다. 3월에 또 사장을 올려 아뢰기를, “신이 지난 무오년(1558, 명종13)에 조정에 들어가 성균관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신병이 이미 극에 달하여 두 서너 달 동안에 출근한 날이 4, 5일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도리어 승직시키라고 명하시고 본조의 참판으로 삼으셨으나 두 달 동안 애써서 겨우 3일을 출근했을 뿐입니다. 이제 한치의 남은 힘도 없어서 성상의 은혜에 보답할 가망이 없으므로 황송해서 물러나 돌아왔사온데, 이제 까닭 없이 갑자기 승진되었으니, 예로부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앞드려 비오니, 성상께서는 신을 특별히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 주시와, 해골(骸骨)이나 고향에 가서 문힐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난해 4월 20일에 허락하신 대로 신을 동지중추부사에서 체차하여 직분 없는 자리로 두셔서, 조금이라도 목숨을 보전하다가 의리를 다하고 죽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지난해 4월 20일에 허락하신 대로 신을 동지중추부사에서 체차하여 직분 없는 자리로 두셔서, 조금이라도 목숨을 보전하다가 의리를 다하고 죽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윤택하지 않고 재촉하여 부른다. 선생은 사장을 올린 뒤 광흥사에서 봉정사(鳳停寺)로 옮겼다. 또 사장을 올려 아뢰기를, “새로 제수하신 관직과 품계는 도리에 비추어 보거나, 자격과 이력으로 보거나 하나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머뭇거리면서 명을 기다린다는 것이 오히려 승직되기를 원하는 뜻이 있는 것 같게 되었사오니, 신의 죄가 더욱 중하옵니다.” 하고, 드디어 봉정사에서 집으로 돌아왔다.<sup>28)</sup>

「병인년 계춘에 소명을 사양하고 산에 돌아와 매화에게 묻다(丙寅季春 辭召命 還山問梅) 예천에 있을 때 매화를 보았는데 그 후 수십 일 만에 陶山에 이르니 산 매화가 처음 피었다.」<sup>29)</sup>

28) 이항, 『퇴계집』, 「퇴계선생년보」 권2.

29) 기대승, 『고봉속집』 권1, 「存齋謄錄」, 「仰次退溪先生梅花詩」.

<제5수>

「도산에서 매화를 방문하다. 陶山訪梅」

爲問山中兩玉仙	산중의 두 옥선계 문안드리니
留春何待百花天	꽃 피는 봄까지 어찌 건디었소
相逢不似襄陽館	서로 만남은 예천과는 또 다르니
一笑凌寒向我前	추위를 무릅쓰고 나를 향해 웃어주네

이 시는 『퇴계집』 권4에 「매화를 대신하여 대답하다(代梅花答)」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기구의 빠진 글자는 '玉'으로 되어 있으므로 우선 보충하여 번역하였으며, 승구의 '待'는 '到'로 되어 있다. 도산의 매화를 보고 물었다. 예천에서 동헌에서 매화를 보고 물었던 그 시상을 도산으로 옮겨왔다. 퇴계에게 있어서 매화는 은자의 스승이자 내조자였다. 퇴계는 겨울이 되면 매화가 일어 상할까 늘 걱정에 차 있었던 사람이다. 퇴계는 겨우내 추위를 견디며 봄이면 어김없이 꽃을 피워주는 매화가 너무 고마울 따름이다. 시에서도 긴 겨울동안 그 추위를 견디며 피워준 매화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이 매화는 예천 동헌의 매화와는 또 다른 정감을 자아낸다. 그 추위를 견딘 매화가 피어서 자기를 반겨준다고 하였다. 퇴계는 매화를 항상 신선의 체모를 갖춘 절개와 지조의 화신으로 의인화 하고 있다.

퇴계의 매화시를 잘 알고 있는 기대승의 차운은 다음과 같다.

縹緗清標鶴上仙	깨끗하고 맑은 모습 학을 탄 신선 같은데
故將芳意露春天	아름다운 그 마음을 봄날에 드러내려고
誰憐鼎實垂烟雨	누가 벼슬살이 가련타고 안개비에 드리웠나
種出嘉萌在眼前	갓 움튼 아름다운 꽃망을 눈앞에 있네

기대승도 매화를 선비기질을 타고난 인간으로 의인화하고 있다. 기대승은 매화에 빠져 사는 퇴계를 이러한 매화의 분신처럼 생각했다. 鼎實은 나라를 다스리는 재상의 역할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조정으로 벼슬살이 가는 퇴계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기대승은 퇴계의 시각으로 매화를

표현하려 애쓰고 있다. 안개비에 갓 움튼 매화의 신선하고 청아한 꽃망울이 퇴계의 눈앞에 있을 것이라 상상한다. 기대승은 퇴계의 매화시를 하나 하나 톺아 가면서 정성을 다해 매화시에 차운하고 있다.

<제6수>

「매화가 대답하다(梅花答)」

我是連翁換骨仙	나는 바로 포옹으로 환골한 신선이요
君同歸鶴上遼天	매화 그대는 학을 탄 요동 선비 같구려
相逢一笑天應許	서로 만나 한 번 웃음 하늘의 뜻이니
莫把襄陽較後前	예천 매화에게 먼저 말했다고 화내지 마오

이 시는 『퇴계집』 권4에 「매화를 대신하여 대답하다(代梅花答)」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기구의 ‘翁’은 ‘仙’으로, 승구의 ‘上’은 ‘下’로 되어 있다.

첫구에 나오는 連翁은 매화를 아내로 삼았던 송나라의 그 林逋(967~1028)이다. 퇴계는 자신을 임포가 환골탈태한 신선이라고 하였다. 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발상인가? 임포를 상상하며 자기도 매화를 아내삼아 임포처럼 사랑하려고 했다. 실지로 퇴계는 27살의 꽃다운 나이로 죽은 아내 허씨를 매화에 투영시키고 임포가 그랬듯이 매화를 아내로 삼았다. 퇴계는 일찍이 33세때 지은 시에서 노닐었던 경남 의령의 처가 매화 정원에서 아내로 삼았다. 이것은 새로 발견한 퇴계의 매화시 십수에 드러나고 있다. 퇴계는 매화를 지나치리 만큼 혹애하고 있었던 것은 사연이 있는 것이다.

제 2구의 학을 탄 요동 선비는 요동의 정영위를 말한다.<sup>30)</sup> 정영위처럼 신선이 되어 학을타고 내려온 듯하다고 하고 있다. 이 시구에서 퇴계는 환생과 그리움 같은 애상을 느끼는 것 같다. 襄陽館은 예천의 옛 이름으로

30) 丁令威; 遼東사람 丁令威가 신선이 되고 나서 천 년 만에 학으로 변해 다시 고향을 찾아와서는 요동 성문의 華表柱 위에 내려앉았는데, 소년 하나가 활을 쏘려고 하자 허공으로 날아올라 배회하면서 “옛날 정 영위가 한 마리 새가 되어, 집 떠난 지 천 년 만에 이제 처음 돌아왔소. 성곽은 의구한데 사람은 모두 바뀌었나니, 신선술 왜 안 배우고 무덤만 이리도 즐비한고.[有鳥有鳥丁令威 去家千年今始歸 城郭如故人民非 何不學仙豢纍]”라고 탄식하고는 사라졌다는 전설이 전한다. 『搜神後記』 卷1.

그곳의 객사를 말한다. 퇴계는 예천의 매화에게 먼저 물었다고 질투할까 봐 도산의 매화를 다독이는 데서 도산 매화를 아내삼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임금의 엄중한 교지와 도산의 매화 사이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퇴계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이 시에 대해 기대승은 다음과 같이 차운하고 있다.

嶺外寒梅是謫仙	영남 도산의 매화는 귀양온 신선
孤芳羈跡各全天	아름다운 자취 각기 천성을 보전했네
何當月下開幽抱	어찌하면 달빛 아래 그윽한 회포를 열고
說到羲皇畫卦前	복희씨 꽤 이전의 이야기 할 수 있을까

기대승은 퇴계의 이 시를 바탕으로 도산의 매화를 귀양온 신선에 비유하며 차운하였다. 퇴계는 임포였고 매화는 정영위였다. 공자가 늦게 『주역』을 좋아하여 책을 엮은 가죽 끈이 세 번이나 끊어졌는데, 공자는 복희씨가 괘를 긋기 전의 뜻에 심취했다고 한다.<sup>31)</sup> 이것은 태고의 정치를 생각하며 속세의 정치상황에서 벗어나서 眞隱의 경지를 들고 싶어 하는 것이다. 먼저 도산의 매화를 찬양하면서 뒤에는 자기의 정을 표현하여 어찌하면 달 빛 아래 퇴계와 만나서 함께 매화를 즐기며 그윽한 회포를 풀어 볼 수 있을까라고 하였다. 이것은 전형적인 선경후정의 수법이다. 기대승의 차운시에는 퇴계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 있다.

제7수와 8수는 퇴계가 1568년 7월 24일 한양에 입성하여 1569년 3월 초순에 도성을 떠나 귀향할 때까지 약 7개월 남짓 머물렀다. 그동안 마음에 내키지 않는 조정 생활에 퇴계의 쓸쓸한 삶과 함께 했던 매화분을 두고 퇴계는 연정을 느낀다. 늘 창가에 두고 책상에서 마주보던 매화와 작별하며 지은 시이다. 이것은 봉은사에서 받았던 기대승의 시와 관련이 있었다.

31) 『史記』, 卷47, 「孔子世家」.

「기사년(1569, 선조2) 봄에 한성 우사에 있으면서 분매를 얻어 늘 책상에서 대하였는데 장차 떠남에 이 시로 작별하다[己巳春 在漢城寓舍 得盆梅 常對案上 將行贈別]」<sup>32)</sup>라는 설명이 붙어 있다. 기대승은 퇴계가 귀향할 때 봉은사까지 전송하며 퇴계가 머물렀던 건천동 집의 매화화분에 대하여 시를 지어준 적이 있었다. 이 두수는 퇴계가 기대승에게 준 매화시 8수 중의 가장 핵심이기도 하다.

<제7수>

「한성 우사에서 분매와 증답하다(漢城寓舍 盆梅贈答)」

頓有梅仙伴我涼	매화 신선 쓸쓸한 나의 짝이 되어주니
客牕瀟灑夢魂香	객창은 상쾌하고 꿈속 혼이 향기롭네
東行恨未携君去	돌아오는 길에 함께 못해 한스러우니
京洛塵中好艷藏	서울 풍진 속에서도 고이 잘 있으세요

퇴계는 서울에서 매화 화분을 정성들여 길렀다. 퇴계에게 있어서 매화는 이제 친숙한 인간으로서 다가와 있었다. 퇴계는 이 매화화분에게도 작별을 고했다. 왜 東行이라고 했을까? 퇴계는 그것에 대해 상세하게 주를 달아 놓았다. 이 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를 붙여 두었다.

“기사년 모춘 3일 溪老. 나의 고향 예안은 영남의 가장 북쪽에 있다. 육로로 문경새재를 경유하여 가면 南行이라 하고 수로로 竹嶺을 경유해서 돌아가면 東行이라 하니, 모두 예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己巳暮春三日 溪老吾鄉禮安 在嶺南最北 陸路由鳥嶺而行則曰南行 水路由竹嶺而歸則曰東行 皆指禮安言也]”라고 하였다.

여기서 기사년 모춘 3일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1569년 3월 1일에 이미 귀향의 운허가 떨어지고 짐을 정리하여 나선 날이 3월3일 이었다. 퇴계는 이 분매들과 작별을 고해야 했다. 기대승이 3월 4일 그 다음날 봉은사에

32) 기대승, 『고봉속집』 권1, 「存齋謾錄」, 「仰次退溪先生梅花詩」.

서 「盆梅」의 시로 이별시를 지어 바친 것과 상관이 있어 보인다. 퇴계는 東行을 盆梅에게 말하여 수로로 내려갈 것을 결정하였다. 어쩌면 매화에 게 노정을 말해 주면서 가는 길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자는 약속인 것 같기도 하다. 퇴계는 이처럼 한양생활 하는 동안 정들었던 매화를 작별하는 섬세함을 볼 수 있다. 퇴계는 매화를 의인화 하여 항상 고매한 인간으로 대하면서 은밀한 神校를 하였다.

기대승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차운하였다.

暗傲霜寒帶月涼	눈서리 속에 그윽히 서늘한 달빛 띠고
小牕培養發微香	작은 창가에서 은은한 향기를 풍기누나
冰姿擬待明年賞	아름다운 빙자옥질 내년에 완상하리니
報道園丁莫謾藏	정원 장정들이여 함부로 대하지 말게나

기대승의 차운도 만만치 않다. 퇴계가 매화를 아끼는 심정을 기대승은 잘 알고 있었다. 퇴계가 가꾼 매화는 독특한 절개가 스며있어 눈서리 속에서도 고절을 꺾지 않는다. 퇴계의 깨끗함을 국화에 투영시키고 있다. 기대승의 차운시에는 퇴계와 매화가 동일시되고 있다. 작은 창가에서 은은한 향을 발하는 퇴계의 속마음 같은 향기가 퍼져 나온다고 상상하고 있다. 얼음 같이 맑고 옥 같이 어여쁜 매화를 내년에 다시 와서 완상할 것이라고 한다. 퇴계는 내년에 매화를 보러 올 것이라 생각하며 정월일 보는 일꾼에게 함부로 매화를 처리하지 말길 당부하는 시상으로 차운한 것이다. 기대승의 차운시도 명품이다.

<제8수>

「매화가 대답하다(梅花答)」

聞說陶仙我輩涼	도선께서 우리들과의 이별을 슬퍼한다니
待公歸去發天香	공이 돌아가는 날에 향기를 피우리라
願公相對相思處	공이시여 마주하고 그리워했던 곳에
玉雪清真共善藏	옥설과 청진도 함께 고이 간직해주오

기대승

稜稜高節撥炎涼	늪름한 높은 절개 염량을 물리치니
風動烟香不廢香(昏)	바람과 안개에도 향기는 그윽하네
春攬百花從爛熳	봄날에 온갖 꽃 흐드러지게 피어나면
水邊林下且深藏	물가 숲 아래 깊이깊이 감춘다오

기사년 모춘 3일 溪老. 나의 고향 예안은 영남의 가장 북쪽에 있다. 육로로 새재[鳥嶺]를 경유하여 가면 南行이라 하고 수로로 竹嶺을 경유해서 돌아가면 東行이라 하니, 모두 예안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퇴계의 이 시는 그동안 서로 연모하던 연인들이 헤어지는 것처럼 전반부 「盆梅贈」에서는 화자가 분매에게 묻고 후반부, 「盆梅答」에서는 분매가 화자가 되어 답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화자는 그동안 쓸쓸했던 한성에서의 삶에 벗이 되어 준 매화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함께 고향 도산으로 돌아가지 못함을 아쉬워한다. 또한 서울의 먼지 속 가운데서도 매화의 고운 모습 잃지 말기를 당부한다. 후반부에서 화자인 매화는 퇴계와 작별인사를 하며 陶仙 퇴계를 위해 돌아가시는 때에 맞추어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발하며 이별을 재촉한다. 매화는 서로 마주 대하고 서로 연모했던 기억을 잊지 말아달라고 당부한다. 퇴계는 매화를 梅仙이라 부르고 매화는 퇴계를 陶仙이라 부르며, 선계로 만든다.

이상으로 퇴계의 매화시 8수와 기대승의 화답시를 분석해 보았다. 이 매화시의 화답엔 고매한 선비들의 매화사랑에 대한 미의식이 넘쳐난다.

### 3. 퇴계와 고봉의 매화시 화답의 여운

퇴계는 이 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퇴계는 그에 대한 소회를 다음과 같이 시로 지었다.

www.kci.go.kr

「기명언이 화답해온 매화시 절구 8수에 대해 오래도록 답을 하지 못했는데 지금 仲約<sup>33)</sup>을 보니 에오라지 한 절구가 도의 뜻이라고 하였다. 奇明彦錄示和梅詩八絕 久未酬報 今見仲約 聊以一絕道意云」

八絕吟梅見素懷	여덟 편 절구로 매화를 읊조리는 소회를 보니
我藏雲壑子銀臺	나는 구름 낀 산골에 숨고 그대는 은대에 있네
相思此日逢江夏	이 날을 생각하며 여름날 강에서 만나
恰似同銜款款杯	친구처럼 툭 티놓고 질편하게 마셔보세 <sup>34)</sup>

퇴계는 후일 기대승의 매화시 8편의 화답시를 받고 자기의 시에서 밝힌 속마음을 기대승에게 들기었다고 부끄러워 한다고 겸손을 표현했다. 기대승은 은대(승정원)의 벼슬에 있었던 적이 있다. 퇴계 자신은 도산의 구름낀 골짜기에 은거하고자 하고 기대승은 은대에 벼슬한다는 표현을 상대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기대승의 8편 화답시에 대한 퇴계의 평가는 대단했다. 퇴계는 이날의 기억을 서로 상기하면서 여름날 강가에서 만나 친구처럼 모든 것을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를 바라고 있다. 기대승은 퇴계에게 스승의 도리를 깎듯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퇴계는 이 8수를 차운해서 함께 붙인 편지에 퇴계는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다.

기대승은 퇴계 선생께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이별한 뒤로 늘 그리는 마음 무엇으로 비유할 수 없던 차에 홀연히 12일에 내리신 서찰을 받들어 배길의 소식과 도산으로 돌아가신 뒤 한가롭고 조용하게 잘 지내심을 알고는 실로 위로되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러

33) 宋 晁仲約: 文學에 뛰어났으며 王安石, 蘇軾, 文同等과 문학으로 교류했다. 《文集並雜著》 25권이 있으며 한 편의 《文廟記》가 세상에 전하는데 《全宋文》 제14책에 수록되어 있다. 晁仲約의 처 程氏(程頤의 사촌)는 官宦世家이다. 부친은 程琳, 字는 天球으로 中山博野 사람이며 參知政事에까지 이르렀다.

34) 李滉 『退溪集』 卷5, 續內集. 詩 「奇明彦錄示和梅詩八絕 久未酬報 今見仲約 聊以一絕道意云」.

나 뵈울 날이 아득함을 생각하니 다시 슬픈 생각으로 정신이 멍해집니다. 저는 오늘도 외람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입어 근근이 몸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 그믐계부터 정신이 피곤하고 나른하며 속이 답답하여 편하게 지내기가 어려웠는데, 또 뜻밖에 사간원의 벼슬에 제수되었으므로 마음이 매우 불안하여 침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생각이 산처럼 쌓여 슬프고 우울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세 절구를 보내 주시니 완미해 보매 기쁘고 다행스러워 뭐라고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방자하게 저의 생각을 서술한 시를 지어서 별지에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두 장의 별지에 기록한 바를 함께 올리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그리움은 글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옥체가 더욱 건강하시기를 빌면서 삼가 절하고 답장을 올립니다.

기사년(1569) 4월 17일 후학 대승은 배상합니다. 이 두 시는 또 어디에 있을까? 기대승의 문집을 뒤져본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것인가 추측해 본다.

「퇴계 선생이 산매와 산옹이 주어서 답한 두 절구를 보내 주셨다. 한가한 취미를 흠모하며 그리움을 금치 못해 감히 거친 생각을 엮어서 웃으며 보시기를 삼가 빌었다(伏蒙先生垂示山梅山翁贈答兩絕 欽想閒趣 懷不能已 敢綴蕪思 伏祈笑鑑) 칠언절구 2수」

寂歷崖濱我所宜  
憶君城市鬱幽思  
天教異事諧今日  
君返柴菴我占時

고요한 절벽이나 물가가 나에게는 맞는데  
그대의 성시를 생각하면 마음이 우울하네  
하늘이 특이한 일을 오늘에 맞추어  
그대가 사립문에 돌아오는 때를 맞추게 했구나

분매의 입장에서 퇴계에게 의인화하여 읊조린 것이다. 매화의 본성은

산속의 바위나 물가가 적당한데 성시를 이루고 있는 서울에서는 좀 안 맞  
는다는 것이다. 앞부분은 분매이고 뒷부분은 도산의 매화들인 것 같다. 도  
라가는 때 마침 꽃이 피어 향기를 발하여 전송할 수 있게한 것은 하늘의  
뜻이라는 것이다.

練帨明粧與子宜  
月寒京洛淡相思  
東風幸借芳盟便  
繞樹徘徊素笑時

흰 수건 맑은 단장이 그대에게 맞는데  
쓸쓸한 서울의 달빛에 맑음을 그리워했노라  
동풍을 빌려 아름다운 맹세를 전해주소서  
매화 주변 배회하며 미소를 지으실 때에

6월 9일에 기대승은 이 사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난번 李滉  
이 물러갈 때 위에서 인견하시고 글을 아는 사람을 두루 물으시자 이황이  
소신이 이름을 들어 계달하였으니, 황공스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황  
이 돌아갈 때 漢江에 나아가 같이 묵었었습니다. 소신이 가서 보고 '계달  
한 말을 듣고 지극히 민망하고 절박하였다. 어찌하여 천청을 번거롭게 하  
였는가.' 하였더니, 이황은 '나는 항상 밖에 있었고, 京師에 와서도 왕래하  
지 않았으므로 본래 아는 사람이 없다. 그대는 전날 서로 簡書를 통하여  
학문을 논하였으니, 내가 아는 사람은 오직 그대뿐이다. 그대가 남보다 훌  
륭해서가 아니라, 다만 주상께서 하문하시는데 아뢰지 않을 수 없어서 아  
된 것이다. 옛사람도 자기가 아는 사람을 추천하였다. 그대가 어찌 혐의한  
단 말인가.'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소신의 마음은 약간 놓였습니  
다. 그 후 지목하는 이가 매우 많았고 '이황이 아무를 추천하였다.'고 하여,  
얼굴을 들고 다니기도 어려웠습니다. 위에서 혹시 문장을 아는 사람으로  
여기신다면 이는 곧 임금을 기망한 것이라 황공하기 이를 데 없어 병을  
호소하여 휘방을 피해 보려고도 하였고, 서로 아끼는 친구들도 '너는 헛된  
이름을 얻었으니 종당에 가서 어찌할 것인가.' 하고 경계하는 자도 많았는  
데 연이어 가까운 곳에서 모시게 되어 물러갈 수도 없었습니다. 불행히도  
또 이 일을 만나서 소신의 이름이 그 가운데 끼었습니다. 소신이 만약 몸  
을 근신하였더라면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더욱 황공하여 어찌할 바

를 모르겠습니다.<sup>35)</sup>

퇴계는 고향에 물러나 산수를 즐겼다. 1569년 가을에 학봉이 휴가를 청해 歸省하였는데, 퇴계 선생이 편지를 보내 이르기를, “나는 조용히 산에서 살고 있는데, 가을 흥취가 사람을 감동케 하여 그대로 이 가을을 보내기가 어렵기에 뜻을 같이할 사람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네.” 하였다. 이에 학봉이 나아가 뵈고는 이어 청량산을 유람하였다.

10월에 조정으로 돌아갈 때에 퇴계 선생에게 글을 올려 立身하는 일과 처신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다. 퇴계 선생이 답해 주기를, “입신에 대한 비유는, 생각이 여기에까지 이르렀으니, 명예를 떨어뜨리는 데 이르지 않을 것인바, 매우 다행한 일이네. 송나라 延平 이동李侗이 일컬은 시 「渚宮梅花」가 음미할 만하니, 비록 관직에 있는 사람이 형편상 다 이와 같이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대개 이런 뜻이 없어서는 안 될 것이네.” 하였다. 시 「저궁매화」는 『延平問答』에 나온다.<sup>36)</sup> 이 「저궁매화」의 운자를 사용해서 기대승이 봉은사에서 퇴계에게 시를 지어 바쳤던 그 시이다. 퇴계는 이 「저궁매화」시를 매우 사랑하였다.

기대승은 퇴계의 꿈을 자주 꾸었다. 「夢見退溪先生」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이 절구 한 수는 이별한 후로 자주 꿈속에서 뵈었기 때문에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지어 아울러 올린 것이다.

前夜依倚杖屨陪	어제 밤 꿈에도 선생님 모습 뵈었는데
今宵款曲笑談開	오늘 밤 꿈에도 점잖게 담소하시네
分明一念猶憂世	분명히 아직도 세상 걱정하시는 모습이었으니
可識先生不著梅	알겠도다! 선생께서 매화에만 집착하지 않음을

선생께서 일찍이 “도산의 매화가 아직 피지 않았으니, 지금 돌아가면 필 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고 하시기에, 제가 말하기를 “산림에 집

35) 『선조수정실록』 권1, 선조 2년 1567년 6월 9일 조항. 참조.

36) 金誠一, 『鶴峯全集』, 「부록」 권1, 「年譜」. 참조.

착하는 것도 성곽에 집착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고, 농담하며 웃은 일이 있었다. 그러므로 끝구에서 운운한 것이다.<sup>37)</sup>라고 하였다. 기대승이 얼마나 퇴계를 존경하며 사모했는지를 알 수 있다.

「양선생왕복서」는 1559년 1월부터 시작해서 1570년 11월 17일까지 114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두 선생의 학문과 교유의 관계를 잘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음청정 주인 김신중이 분에 매화를 길렀는데 동짓달 그믐날 계상의 별장에 대설이 내릴 때 매화 한 가지와 시 절구 두 편을 부쳐왔다. 맑은 아침이 송상할 만하여 차운하여 수창하였다. 이로 인하여 지난 봄 서울에서 얻은 분매가 몹시 아름다웠는데 얼마 후 동쪽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리움을 그치지 못했던 일을 기억하고 뒤 시에다 아울러 언급하였다. 挹淸主人金愼仲盆養梅花 至月晦日 溪莊大雪中 寄來梅一枝詩二絕 淸致可尙 次韻奉酬 因記得去春都下 得盆梅甚佳 未幾東歸 思之未已於後併及之」

盆中未臘梅花發  
澗上窮陰雪片橫  
折寄相思淸入骨  
挹淸眞箇不虛名

화분 속 매화가 아직 피지도 않았는데  
도랑가 음지에는 눈얼음 조각이 산만하네  
그리움에 꺾어 부친 청아함 뺏속에 사무치네  
음청이란 이름 진실로 한 것 허명이 아니구료

痛憶京師二月中  
盆梅歸袖挹仙風  
那知此日高齋裏  
幻出黃鍾律未窮

서울에 있을 때 이월 중 그 아픈 기억은  
분매 가지 소매에 넣고 돌아와 그 풍모에 빠졌던 일  
어찌 알리오 이날 고상하게 가라앉는 그 속마음에  
환상이 황종에서 나와 그 리듬이 다하지 않는 것을<sup>38)</sup>

퇴계는 이 시에서 서울의 건천동 우사에 기거하면서 화분에 매화를 기를 때 이월 중에 꽃을 피운 매화 한 가지를 소매에 넣고 돌아와 그 매화의

37) 기대승, 『고봉속집』 권1, 「存齋謾錄」, 「夢見退溪先生」.

38) 李滉, 『退溪集』 卷5, 續內集, 詩.

풍모에 빠지던 날, 그 기억을 어찌 잊을 수 있을까? 그날따라 고상하게 가라앉은 마음 위에 올려 퍼지던 환상의 향기는 마치 황종의 잔잔한 음률처럼 은은하게 퍼져 나와 다하지 않는 향기. 퇴계는 청각과 후각 그리고 시각 그 공감각적 심상을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 퇴계는 제자였던 읍청정 주인 金富儀(1525~1582)가 부쳐온 매화 한 가지에 불현 듯 두고 온 한양의 매화 화분을 생각하며 시상에 젖는다. 그렇게 이 서울의 분매는 얼마 안되어 다시 퇴계의 품으로 돌아 왔다.

「도성에서 매화 화분이 내려왔다. 호사가 김이정이 손자 안도에게 부탁하여 배에 실어 부쳐오니 기뻐서 절구 한 수를 지은 것이다. 都下盆梅 好事金而精<sup>39)</sup>付安道孫兒 船載寄來 喜題一絕云」

脫卻紅塵一萬重  
來從物外伴癡翁  
不緣好事君思我  
那見年年冰雪容

서울 풍진 속을 벗어나 만 겹 산 넘고 물 건너  
속세 밖 이곳으로 찾아와 파리한 노인 짝하네  
호사의 인연이 아니라면 그대와 나 생각이나 했을까  
어찌 빙설 같은 얼굴 해마다 볼 수 있었을까<sup>40)</sup>

퇴계는 그렇게 그리워하던 매화 화분을 다시 보게 된다. 문인 김취려가 스승이 기르던 분매를 도산으로 부쳐 주었던 것이다. 퇴계는 그 재회의 기쁨을 시로 형상화한 것이다. 퇴계는 이 매화를 극진히 아끼며 죽기 직전까지 사랑했다.

이 시기에 약 8개월간 한성에 체재하던 중에 애완하던 분매를 두고 떠나면서 함께 가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매화 문답 시이다. 이 분매는 후에 고향 온혜리로 옮겨왔으며 퇴계가 임종시 ‘물을 주어라’고 했던 그 매화이다.

39) 金而精 本명 金就礪. 자는 而精, 호는 潛齋·靜庵. 퇴계선생의 문인.

40) 李滉 『退溪集』卷5, 續內集. 詩, 「都下盆梅 好事金而精 付安道孫兒 船載寄來 喜題一絕云」.

“퇴계는 1570년 12월 8일 酉時에 돌아 가셨다[辛丑酉時 終于寢]. 이날 아침에 시중드는 사람들로 하여금 ‘매화의 화분에 물을 주어라’고 하였다. 이 매화화분이 바로 한양에서부터 기르던 그 매화화분이다. 그리고 酉初(오후 6시쯤)에 누워있는 자리를 바르게 하라고 명하셨고, 그리고 부축하여 일으키게 하고, 앉아서서 편안하게 돌아 가셨다[是日朝 令侍人灌盆梅 酉初 命整臥席 扶起而坐 恬然而逝].”<sup>41)</sup>

많은 연구자들은 퇴계가 임종에 이르러 마지막으로 한 말은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라고 하고 있다. 그러나 퇴계가 죽으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은 酉初(오후 6시쯤)에 ‘자리를 바르게 해 달라는 것’이었고, 매화 화분에 물을 주라고 한 것은 그날 아침이었다. 그리고 약 열 시간 뒤인 오후 6시쯤에 돌아가셨다.

이것은 도학자의 바람직한 임종의 길이다. 도학자들은 천리를 관찰하여, 대자연의 올바른 순환을 걱정한다. 사시가 바르게 순환하고, 음양의 논리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며, 천지가 사람과 더불어 바람직하게 합치하는 것, 천인합일의 자연주의를 존중한다. 퇴계가 자리를 바르게 하고 앉아서 고종명 한 것은 성리학자의 올바른 운명이었다.

퇴계는 기대승에게 묘갈을 부탁해 놓고 스스로 自撰한 墓誌銘을 이미 지어놓은 상태에서 초연하게 매화향기 속에서 세상을 떠셨다. 죽음을 대자연의 순환 속에 하나라고 판단하고, 초연히 임하는 성리학자적 삶이 엿보인다. 퇴계선생에게도 초월주의가 있었다. 매화에게 물을 주게 한 것은 대자연의 순환과 퇴계의 이 성리학적인 삶이 오묘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물을 받은 매화는 향기를 더욱 뿜어내었다. 매화에게서 음양의 순환을 관찰하며 대자연의 어김없는 질서를 보아왔던 퇴계의 마지막은 매화향기 그윽한 방안에서 가장 바른 자세로 앉아서 고종명을 하였다.

퇴계는 어쩌면 평생을 같이해온 매화의 혼령과 함께 담담하게 그리고 유유히 세상을 떠셨다. 이 초연한 죽음을 우리는 슬픔 속에서 애도하면서

41) 李滉 『退溪集』, 「言行錄 5」, 유편. 참조.

도, 한 성리학자의 아름다운 고종명을 다시금 되새겨 보아야 한다.

고봉의 퇴계 선생에 대한 제문은 다음과 같다.

저는 속으로 字劃이 전과 다름을 이상히 여겼으나, 神氣가 크게 감소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는 망녕되어 생각하기를 옛날 증세가 우연히 발작한 것이니 마땅히 약을 쓰지 않아도 쾌차하시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중략) 뒤에 제가 올린 편지는 선생의 병환 때문에 미처 几案의 옆에서 봉함을 열어 보시지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득한 천지에 만나 뵈을 길이 없사오니, 오직 여생을 다하고 지하에 간다면 혹시라도 선생의 의형(義刑)을 접하여 남은 종적(踪迹)을 뒤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sup>42)</sup>

고봉이 보낸 마지막 편지는 퇴계가 안타깝게도 보지 못하였다. 그 속에 아뢰고 싶었던 것이 일이 있었지만 고봉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고봉은 부고를 받고서야 퇴계 선생이 돌아가셨음을 알고 태산이 무너지는 아픔을 느꼈다. 기고봉은 죽어서도 퇴계의 뒤를 따르고 싶다고 하였다. 이 아름다운 만남과 이별은 우리 선비사에 길이 빛날 일이었다. 그것은 이 만남과 이별 속에 밤하늘의 별처럼 지워지지 않는 고결한 매화시가 우아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더욱 아름다운 것이다.

#### IV. 결론

이상으로 退溪 李滉(1501~1571)과 高峰 奇大升(1527~1572)이 和答한 매화시들을 살펴보았다. 퇴계는 매화시를 120수를 지을 정도로 매화를 특별히 사랑한 시인이다. 그 중에서도 퇴계가 기대승에게 매화시 8수를 주고 화답을 요구한 사건은 퇴계의 매화시 중의 백미이다. 이 매화시 화답의

42) 기대승, 『고봉집』 권2, 「퇴계 선생에 대한 제문」.

배경에는 퇴계와 고봉의 오랜 인연의 끈이 존재하고 있었다.

퇴계는 기대승을 비롯한 조정대신들과 선조임금의 간청으로 1568년 7월에 출사하여 약 8개월간 판중추부사로 조정에 있었다. 그는 한양에 있는 동안 건천동 우사에 기거하면서 매화 화분을 정성스럽게 길렀다. 퇴계는 매화 화분을 아내처럼 사랑하면서 벼슬의 고달픔을 달래고 있었다.

퇴계는 조정에 마음이 없어서 여러 차례 상소를 올려 고향 도산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고봉을 비롯한 조정대신들은 퇴계가 조정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며 귀향을 만류하고 있었다. 퇴계는 여러번 사직상소를 올린 끝에 1569년 3월 드디어 선조임금으로부터 귀향해도 좋다는 허락받아 내었다. 퇴계는 돌아올 짐을 정리하면서 정성껏 기르던 매화 화분을 두고 오기가 마음아파서 매화 화분에 이별을 고하는 매화시 「漢城寓舍盆梅贈答」를 짓는다.

이러한 정황을 알고 있는 고봉은 고향 도산으로 귀향하는 퇴계를 정성스럽게 모시고 배웅하였다. 고봉은 퇴계를 전송하면서 봉은사에서 같이 머문다. 이날 저녁 고봉은 퇴계선생을 모시고 같이 자면서 이별의 주연을 길게 가졌다. 고봉은 술자리에서 퇴계가 건천동 우사에서 기르던 「盆梅」를 주제로 이별의 시를 지어 올렸다. 고봉은 퇴계가 매화 화분을 酷愛하고 있는 사연을 들추면서 내심 이별을 만류하고 있었다.

퇴계는 그 다음날 고향 도산으로 돌아가기 위해 광진 나루로 향하였다. 조정의 많은 인사들이 퇴계를 전송하기 위해 광진나루로 나왔다. 이 전송연은 조정이 텅 빌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성대하게 벌어졌다. 이들은 이별의 정한을 정성껏 시에 담아 배를 타고 귀향하는 퇴계를 전송하였다. 퇴계와 기고봉의 만남과 이별은 극적인 것이 많았다. 이것은 사실상 고봉과 퇴계의 마지막 이별이 되었다. 퇴계와 고봉의 이 이별은 조선 선비사의 수많은 이별 스토리 중에 한 획을 긋는 명장면이었다. 이들이 이별하며 남긴 매화시 퍼포먼스는 숭고하고 우아했다.

퇴계는 이 자리에서 매화시 8수를 고봉에게 주면서 화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이것은 전날 밤에 고봉이 이별의 정을 못 이겨 지어준 그 매화

시에 대해 이전에 지었던 매화시와 건천동 우사에 두고 온 매화분에 대한 깊은 사연을 담은 것으로 화답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었다.

그가 이별할 때 준 매화시 8수는 각기 다른 시기에 2수씩 네 번 지어진 것이다. 첫 번째 두수 제1, 2수는 독서당의 망호당 앞에 핀 매화를 읊은 것이고, 제3, 4수는 예천 동현의 뜰에 핀 매화를 읊은 것이고, 제5, 6수는 예천에서 도산으로 돌아가 도산의 매화를 보고 지은 것이고, 제7, 8수는 서울에 우거하면서 매화 화분을 보면서 지은 것이다. 퇴계의 이시들을 분석해 보면 매화를 정결하고 절개있는 여인으로 의인화하고 매화에게 묻고 답하는 문답시과 대화와 독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여기에 화답한 고봉의 매화시 또한 이러한 미의식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이것은 퇴계와 고봉의 매화시 화답의 대표적인 미의식이었다.

이 매화시 8수 끝에는 건천동 우사의 매화 화분이 등장한다. 이 매화시 8수의 화답이 있게한 것은 이 매화분 때문이었다. 퇴계는 이 사실을 기대승에게 알려주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길 기대하고 있었다. 이 매화의 의인화 속에는 퇴계가 26세의 청춘에 사별한 김해 허씨의 이미지가 곳곳에 스미어 있었다. 이 매화시 8수에는 퇴계의 인생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퇴계 말년에 기고봉이 차운한 8수는 퇴계 매화시의 정수였다. 이것은 기대승이 봉은사에서 이별하며 써 주었던 매화 화분 시가 발단이 된 것이다. 퇴계는 그동안 매화시 화분에 대한 자기의 회포를 정리해 보았다. 그리고 이 매화 화분에 얽힌 사연을 이 8수 속에 담아 기대승에게 주고 화답시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퇴계의 매화시가, 69세에서 70세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퇴계와 고봉의 매화시 화답에 대한 영향이 크다.

퇴계의 매화시는 33세 때 처가의 매화정원에서 사별한 김해 허씨를 형상화하여 지은 연작시 10수를 시작으로, 42세 때 두수, 그 이후 해마다, 두세 수 씩, 서너 수 씩 짓다가, 69세에서 70세 임종할 때까지 30여수 정도를 짓는다. 이 시기에 약 8개월간 한성에 체재하던 중에 애완하던 분매를

두고 떠나면서 함께 가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을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매화 문답시이다. 이 분매는 후에 도산으로 옮겨왔으며 퇴계가 임종시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고 했던 그 매화이다.

퇴계의 임종에 대한 기록을 보면 돌아가시는 날 오전에 '매화 화분에 물을 주어라'고 하였다고 전한다. 이것은 퇴계의 영원한 매화 사랑의 화두이다. 그 이면에 먼저 가신 아내 김해 허씨와 저승에서도 함께하겠다는 평생의 여망이 있는 것은 퇴계의 인간미였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남긴 말은 그날 오후에 임종하면서 "나의 자리를 똑 바르게 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마지막을 매화의 향기 속에 묻혀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세상을 떠난 것은 유학자의 바람직하고 의미 있는 선비의 품격이었다.

퇴계와 고봉이 주고받은 이별의 매화시는 우리 역사에 길이 빛날 유명한 사건이었다. 이것은 퇴계 매화시의 정수였다. 기대승은 이 시들을 하나 하나 톺아 가면서 이에 차운한 시는 퇴계 이황의 매화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매화를 통한 두 석학의 교감은 아름다웠다. 퇴계의 매화시에 대한 지평이 더욱 넓어지기를 기대한다.

〈參考 文獻〉

■ 원전자료

『孟子』

『史記』

『大東野乘』

『搜神後記』

『朝鮮王朝實錄』

『宣祖修正實錄』

『退溪先生文集』

『高峯全書』

『西厓集』

『鶴峯集』

『栢潭集』

■ 연구논저

기태완(2011), 『퇴계 선생』매화시집』 譯註, 보고서.

신두환(2017), 「퇴계의 매화시 재조명」, 『한문학보』 제37집, 우리한문학회, 35~86면.

정석태(1987), 「이퇴계의 매화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석태(1991), 「퇴계의 매화시에 대하여」, 『퇴계학연구』,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 65~85면.

허경진(1999), 「퇴계와 고봉이 주고 받은 매화시에 대하여」, 『傳統과現實』 제10호, 高峰學術院, 207~236면.

## Abstract

### *Aesthetic Consciousness of the Exchanged Maehwa-poems(梅花詩) between Toe-gye(退溪) and Go-bong(高峯).*

Shin, Doo-hwan\*

This paper studied the aesthetic sense of Maehwa-poem exchanged between Toe-gye(退溪) Lee-hwang(李滉.1501-1571) and Go-bong(高峯) Gi-dae-seung(奇大升.1527-1572).

Despite the age gap between Toegye and Gobong, there has been a variety of academic exchanges and discussions. Gobong systematically completed his knowledge of Neo-Confucianism by using Toegye as his teacher.

Go Bong insisted to the government that Toegye should be served as a regent. Toegye, who was last present at the request of King Seonjo, After working for the government, he filed several appeals for his resignation, and finally came back to his hometown after being allowed to resign.

At that time, Gobong sent Toegye and wrote a poem on the theme of the Maehwa-pot that Toegye grew in Seoul. Toegye asked Giogobong to give him an answer by giving him eight Maehwa-poems as a token of farewell at the last time he was on a boat leaving. The scene of the two parting as Maehwa-poems was noble and noble.

Toegye was a literary man who loved Maehwa so much that he left about 120 Maehwa poems. Gobong was sent to the eight Maehwa poems that Toegye had given to him with great care. Toegye also wrote a reply poem and sent it to Gobong along with a letter. Go Bong wrote another poem about it.

Maehwa poems, where Toegye and Gobong exchanged, is full of dignity and style. The Maehwa poems they exchanged were full of intelligent and romantic poetry, imbued with a high degree of dignity and a variety of Neo-Confucian aesthetics.

**【Key words】** Toe-gye Lee-hwang, Go-bong Gi-dae-seung, The Maehwa poems, The exchanged poems, Aesthetic consciousness.

투고일 : 11월 19일, 심사완료일 : 12월 6일, 게재확정일 : 12월 22일

\* Professor, Andong university / ilovestudent@hanmail.net

